

총장로 상권 침체에... '금싸라기 땅' 건물 허물고 주차장

광주시 동구 총장로1가 건물 4채 허물고 30면짜리 조성 "3년째 임차인 못찾아...지자체 차원 상권 부활 대책 필요"

최근 광주시 동구 총장로1가 초입에 건물 4채를 허물고 30면짜리 주차장이 들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동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다 수십억원대를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곳인데, 상가 건물을 통째로 허물고 주차장을 지었기 때문이다.

6일 총장로1·2·3가 상인회 등에 따르면 무인 유료주차장인 '총장로1가 주차장'이 오는 11일께 광주시 동구 총장로1가 4번지 일대에서 문을 연다. 이 주차장은 650여㎡(198평) 부지에 총 30면의 주차 공간을 갖는다.

이 곳에는 당초 총 3개 필지에 걸쳐 4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으나, 최근 토지 소유주 3명이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었다.

토지 소유주 강효창(46)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총장로 상권이 침체해 상가 임대료가 되질 않으니, 살아남기 위해 주차장을 지었다"고 주차장 설치 이유

를 밝혔다.

강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 2020년께부터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해 임대를 내놨는데, 3년여 동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단가만 해도 평당 4500~6500만원에 달하는 터라 토지를 구입하는 데만 총 65억여원을 들였는데도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총장로·금남로 지역 상가 공실률이 끝없이 오르고 있고, 건물 자체도 수십년 세월이 노후한 터라 상가 임대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씨는 밝혔다.

강씨는 "다행히 주말에는 여전히 총장로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으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며 "일단 주차장을 운영해보고, 건물을 새로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신설 주차장은 총장로의 침체를 방지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총장로가 호남지역 최대 중심 상권이었으나, 상가 임대를 못 해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침체된 상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총장로·금남로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상승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남로·총장로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9.9%다. 공실률은 2분기를 기준으로 2019년 15.2%, 2020년 19.8%, 2021년 23.5%, 2022년 25.8%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총장로1·2·3가 상인회는 신설 주차장이 총장·금남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가 건물 사이, 총장로 한복판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각 상가 건물이 연결되지 않아 상권이 단절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일성 총장로1·2·3가 상인회장은 "총장로 상인들이 침체한 상권을 이겨내기 힘들어 공여지적으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늘려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vijou@



최근 광주시 동구 총장로1가 4번지 일대에 무인 유료주차장이 들어섰다. 주차장은 오는 11일께 문을 열 계획이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호남선 SRT 주말 예고 없이 축소 운행...좌석 절반 사라져

노조 "중편열차"를 단편성 열차로 변경...410석 줄어"

호남선 SRT 중편열차(기관차 2대 이상을 연결해 운행하는 열차)가 지난 주말 예고 없이 축소 운행됐다.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SRT를 축소해 운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계획에도 없던 호남선 SRT까지 축소한 것이다.

6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SRT가 열차 2대가 연결된 '중편열차'가 아닌 단편성(기관차 1대)으로 운행됐다.

중편열차는 동력을 사용할 수 있어 운행이 가능한 기관차 2대를 양쪽으로 붙여 운행하는 방식이다.

기관차가 많으면 그만큼 견인할 수 있는 객차와 화차 수도 많다. 예를 들어 디젤 기관차 1대가 서울 발 부산행 무궁화를 견인한다면 아무리 많아도 9량 이상은 버겁지만 중편열차로 운행하면 산술적으로는 17~18량까지도 가능하다.

노조는 "그동안 운행되던 중편열차를 단편성 열차로 변경하는 바람에 410명이 탈하는 좌석이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SR측의 열차가 적은 부분을 고려해 열차 운행횟수가 많은 수서부산행 열차 2대와 예비편성 1대 총 3대를 줄이기로 했다. 이 열차들은 전라·경전·동해선에 1개씩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편열차를 단편성으로 운행하게 되면 열차 운행 횟수는 그대로이고 좌석만 축소돼 쉽게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호남선을 꼼수운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7일 오전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호남선 SRT 축소우회! 수서행 KTX 즉시운행!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축소 운행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일회용품 줄이기' 5점 만점에 2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조사...해남군 4.3점 '전국 톱10'

광주시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전국 평균 이하로 평가됐다.

환경운동연합이 자원순환의 날(9월6일)을 맞아 전국 242개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지자체 일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5점 만점에 2점으로 집계됐다.

단체는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가지 항목의 질의를 전국 지자체에 보내 취합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질의를 ▲일회용품 사용 점검 현황 ▲매장별 단속·점검 계획 ▲감축 계획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질의당 5점 만점으로 총 15점을 부여했으며

평가 개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전국 지자체중 부산시 사하구와 중구 두 곳만이 만점을 받았지만, 광주시는 2점에 그쳤다. 특히 향후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및 불필요한 일회용품 폐기물 감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광주시는 '미정'이라고 답해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광주 지자체는 동구 2.3점, 서구 2.3점, 남구 3점, 북구 2.3점, 광산구 3점을 기록했다.

응답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3곳이었는데 이중 한 곳이 전남도였다. 반면 해남군은 4.3점을 받아 상위 10위 지자체에 포함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84일만에 파업 잠정 중단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가 84일간의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보건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는 6일 오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84일만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교섭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9월까지 시립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이 총파업 중단의 이유다.

노조는 광주시에 적정인력과 근무조건이 명시된 단체협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취업규칙과 임금체계를 원상회복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학생 머리 밀치며 훈계" 아동학대 피소된 교사

광주에서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남부경찰은 광주시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A군의 부모가 담임인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A군이 교실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자 B교사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밀치고 넘어지게 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지난 7월 3일 경찰에 B교사를 고

소했다. 경찰은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고 A군 부모와 B교사 모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B교사는 A군을 훈육하던 중 손이 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군의 부모 측은 'B교사가 머리를 밀쳤다'며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교사에 대한 혐의 적용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